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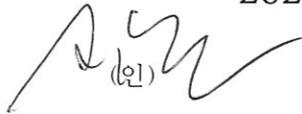
제306회 정기 이사회 의사록

건명	1. 의결안건 제482호 2020회계연도(제21기) 결산(안) 2. 의결안건 제483호 2021년도 EBS 운영계획(안) 3. 보고안건 제2021-2호 2020년 연간 감사결과 4. 보고안건 제2021-3호 2021년 2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상정자	사장 김명중		
일시 및 장소	2021. 2. 25.(목) 14:58 ~ 16:49, 18층 대회의실		
출석 인원	이사 8명	결석 인원	이사 1명
참석자	유시춘 이사장, 김양은 이사, 문종대 이사, 박강호 이사, 선동규 이사, 이영한 이사, 장옥님 이사, 정동섭 이사		
회의 결과	1. 제482호 : 공개, 원안 의결 2. 제483호 : 공개, 원안 의결 3. 제2021-2호 : 공개, 청취 접수 4. 제2021-3호 : 공개, 청취 접수		기록자 간사

위 의결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연서 날인함.

2021년 3월 18 일

이사장 유시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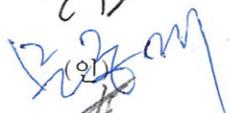


이사 김양은



이사 김진 결석(인)

이사 문종대



이사 박강호



이사 선동규



이사 이영한



이사 장옥님



이사 정동섭



제 306 회

이 사 회

- ◆ 일 시 : 2021년 2월 25일(목) 15시
- ◆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한국교육방송공사 본사 18층 대회의실

한국교육방송공사

회 순

I. 개회	1
II. 인사	2
III. 전차 의사록 확인	4
IV. 상정안건	5
< 의결안건 >	
제482호 : 2020회계연도(제21기) 결산(안)	6
제483호 : 2021년도 EBS 운영계획(안)	16
< 보고안건 >	
제2021-3호 : 2020년도 연간 감사결과 보고	37
제2021-2호 : 2021년 2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30
V. 폐회	39

(開會 : 14時 58分)

I . 開 會

○ 議長 유시춘

이사회 사무국장님, 성원보고 해 주십시오.

○ 理事會 事務局長 김혜영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아홉(9) 분 가운데 김진 이사님을 제외한 여덟(8) 분이 참석하셔서 이사회 규정 제7조에 의거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였기에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이종풍 위원장, 김무성 사무처장, 김경민 사무국장 등 모두 3명입니다.

○ 議長 유시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 제306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議事棒 三打))

II. 人 事

○ 議長 유시춘

안녕하세요.

하루 사이에 봄이 성큼 바로 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직 코로나19 현황이 긴장을 유지하는 상태여서 봄이 왔으나 봄 같지 않습니다.

마음에 봄이 찾아오기까지 한참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감염률이 낮아지고 일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불규칙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에서 다음 주에는 각급 학교의 개학이 시작됩니다.

작년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지원하느라고 우리 EBS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도 등교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병행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더 내실 있는 수업을 할 수 있기 위해 EBS도 여러 모로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런 학교 현실에, 그리고 그 필요에 꼭 맞는 준비를 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유명하지 않은 한 시인이 자신의 보잘 것 없는 시편이 무릎 다친 사람에게 머큐롬 같은 존재, 굶주린 이에게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마음을 EBS가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대한민국 학부모, 그리고 수업을 직접 듣는 학생들에게 EBS가 그렇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또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상정안건은 2020년 결산, 2021년 운영계획 등 매우 중요한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한 보고와 논의를 거쳤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보완된 내용으로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이사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김명중 사장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 社長 김명중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이때쯤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된 코로나19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봄은 다시 찾아왔고, 또 학생들은 새로운 기대와 함께 한 해를 시작하는 개학의 시기도 다가왔습니다.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온라인클래스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교육부총리님 모시고 가서 실제 현장 점검도 하고 교사들하고 같이 웨비나(웹+세미나)하고 했습니다만 개학을 앞두고 앞으로 또 개선해야 될 작은 개선점들이 많아서 지금 저희 직원들도 3일에 한 번 정도 잠깐 집에 들어갔다가 나올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바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안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또 내일부터는 부사장께서 현장 기술상황실을 지휘하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있었던 문제점들을 사전에 또 한 번 재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본사에서 비상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EBS는 2021년 새 학기를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학생들이 최소화되고, 지난번 이사회 간담회에서도 강조해 주신 것처럼 학력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공사 운영계획안에 각 사업 추진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한 것처럼 원격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콘텐츠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공적 책무를 더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사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2021년도 운영계획안 및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의결과 2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그리고 2020년도 연간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사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Ⅲ. 前次 議事錄 確認

○ 議長 유시춘

그럼 지난번 의사록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개최된 제305회 정기이사회 의사록을 확인하고 접수하겠습니다.

이미 이메일로 송부가 되었고 이사분들께서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수정할 내용이나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수정사안이나 이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理事들 있음]

예, 없으시면 제305회 정기이사회 의사록은 원안대로 접수합니다.

((議事棒 三打))

IV. 上程案件

○ 議長 유시춘

다음은 회의 공개 여부인데요.

관례에 따라서 네 안건 중에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칙 3조 4항에 따라서 제2021-2호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안건만 비공개로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세 안건은 예전처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보고안건 2호만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理事들 “예.”]

그러면 보고안건 2호 2020년도 연간 감사결과만 비공개에 부치고, 나머지 3건은 공개리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決案件〉

【 第482號 : 2020會計年度(第21期) 決算案 】

○ 議長 유시춘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2020회계연도(제21기) 결산안」 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三打))

경영지원센터장은 보고해 주십시오.

○ 經營支援센터長 정봉식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및 이익잉여금처리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도 기말 기준 자산, 부채, 자본의 구성 현황을 보여주는 재무상태표와 2020년도 1년간의 사업수행 실적을 보여주는 손익계산서, 그리고 이익잉여금처리안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사회 간담회 시에 보고 드린 세부 설명자료와는 달리 본 의결안건은 표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실 것 같고, 증감사유 같은 것은 지난 간담회 때 자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항목별 증감현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p)6입니다. 재무상태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자산 부분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표 맨 아래 보시면 자산총계가 나와 있는데요.

당기 2,600억8,400만원으로 전기대비 121억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유동자산이 전기대비 220억1,800만원 증가한 반면에 비유동자산은 전기대비 99억1,600만원 감소했습니다.

1번 항목 유동자산 세부 내역입니다.

당좌자산은 전기대비 220억8천만원 증가했습니다.

전기대비 크게 증가한 내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203억1,200만원 증가했는데, 이는 간담회 때 보고 드린 것처럼 신규 국고사업인 교육콘텐츠 제작, 그다음에 원격교육지원사업비와 수탁사업비 일부 사업비가 올해로 이월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가세전급금 21억7,400만원 증가했는데, 이는 작년 국고보조금이 증가하면서 부가세 환급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은 전기대비 6,200만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2번 항목 비유동자산 증감 내역입니다.

투자자산은 전기대비 5억5,800만원 증가했는데, 이는 자회사 당기순이익 규모가 전기대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유형자산은 전기대비 99억300만원 감소했고, 무형자산은 6억8,8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감가상각비 적용한 것 때문입니다.

기타비유동자산은 1억1,7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p)7입니다.

부채와 자본 부분입니다.

부채 총계는 전기대비 121억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유동부채는 전기대비 22억8,800만원 증가했는데, 단기차입금은 172억원 감소한 반면에 매입채무는 28억8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온라인클래스 작년 12월 운영비 등이 올해 1월에 지급이 되면서 그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다음 미지급금이 15억5,4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 임금인상 차액분 13억이 작년에 지급되지 않고 올해 1월에 지급된 것 때문입니다.

예수제세금이 11억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연말에 지급된 여러 가지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세금이 올해 1월에 납부된 것 때문입니다.

반품추정부채 38억5,500만원 증가했습니다.

교재 제작부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선수금은 100억3,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격교육지원사업 등 국고사업 등, 그리고 일부 수탁사업비가 이월됐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비유동부채는 전기대비 33억6,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퇴직급여충당 적립금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금입니다.

전기대비 64억4,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당기순이익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본금은 정부출자금과 이익준비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자본금은 전기대비 변동이 없지만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중 임의적립금은 전기대비 100억6,300만원 감소했는데, 이것은 2019년 결손금을 임의적립금에서 공제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p)8 손익계산서입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수입총액은 3,087억4,900만원으로 전기대비 643억9,500만원 증가했습니다.

표 맨 아래 보시면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전기대비 643억5,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중 방송사업수입은 전기대비 329억5,700만원 증가했는데, 세부적으로는 수신료가 2억4,100만원, 국고보조금이 378억5,300만원, 기타 방송사업이 7억3,100만원 증가한 반면에 방송발전기금이 21억 7천만원, 방송광고수입이 36억9,800만원 각각 감소했습니다.

방송발전기금은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사업하고 클럽뱅크 사업이 '19년도에 종료되면서 발전금이 축소된 것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다음 부대사업수입은 전기대비 313억9,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출판사업이 122억5천만원, 문화콘텐츠사업이 84억600만원, 콘텐츠사업이 31억 5,200만원, 기타부대사업이 75억8,700만원, 기타부대사업은 수탁사업, 협찬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전기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사업외수입은 전기대비 4,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자수익이 6,800만원 감소했고요, 저희가 차입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분법이익이 5억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유형자산처분이익 4,200만원 증가를 했고요, 잡수입은 4억4천만원 감소했습니다.

전기소송합의금이 2억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재효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p)9입니다.

비용 부분입니다.

비용 총계, 맨 밑에 세 번째 줄에 총계가 나와 있는데요.

3,023억400만원 전기대비 478억8,700만원 증가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매출원가가 전기대비 415억4,900만원 증가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방송사업비가 239억4,400만원, 부대사업비가 176억500만원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판매관리비가 54억9,700만원 증가했는데, 판매비가 1억1,200만원 감소한 반면에 일반관리비는 56억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지급된 성과상여금 이런 이유입니다.

다음은 사업외비용이 2억3700만원 증가했습니다.

법인세비용이 순증했는데 당기순이익 발생에 따라서 6억400만원 순증이 됐습니다.

앞장에서 설명 드린 수입액이 3,087억4,900만원에서 비용 총액 3,023억400억을 뺀 64억4,500만원이 금번 당기순이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p)10 이익잉여금 처분안입니다.

공사 정관 제38조 1항에 의거 결산 결과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이익금의 20%를 이익준비금에 적

립하고, 국고배당을 하고 남은 잔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는 안입니다.

현재 자본금 앞서 재무상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출자금 888억6,300만원과 이익준비금 206억 8,100만원, 그리고 임의적립금 425억5,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보고 드린 것처럼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64억4,500만원이고, 이 금액에서 20%에 해당하는 12억8,900만원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국고배당은 당기순이익의 12.2%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7억8,600만원을 국고 배당하고 계산하면 나머지 43억7천만원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p)11 예산 대비 결산 손익계산서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는 당기 결산 결과를 전년도와 비교해서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표시한 겁니다.

수입의 경우에는 예산 대비 129억8,300만원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비용은 예산 대비 273억6,100만원 미집행됐습니다.

이로써 예산은 수입 3,217억3,200만원, 비용 3,296억6,500만원으로 79억3,300만원 적자로 편성됐지만 결산 결과 64억4,500만원 당기순이익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항목별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고, 지난해 간담회 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세부 항목별 예산 대비 내역은 예산부에서 3월 중에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질의가 있으시면 지나 뒤에 배석하고 있는 해당 부서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본 안건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저희 간담회 때까지는 미정이었던 사안인데 (p)10의 국고납입 관련 사안도 있고요.

그래서 감사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 監事 김재영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감사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2020회계연도 제21기 결산안에 대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2조 제3항과 정관 제1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공사의 재무제표가 대한민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입각해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공사는 2020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이래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상당기간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과는 달리 단기간 내에 이를 벗어났습니다. 매우 큰 성과입니다.

더구나 당초 예산이 7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목표로 편성된 점을 고려할 때 당기순이익 64억원이라는 결산 결과는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사업손익이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며, 종전 172억원이었던 차입금 규모가 제로 상태로 개선되었습니다.

분명 획기적인 결과이고, EBS 모든 임직원의 합심노력에 기인했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성과의 이면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원격교육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대, 온라인클래스 효과에 따른 교재 판매수입 증가, 팽수 등 IP 기반 사업 관련 매출 호조 등이 사업수익을 나름대로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사업구조의 취약성은 여전히 보입니다.

지상파 광고시장 위축에 따른 방송광고수입은 계속 하락했으며, 코로나19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콘텐츠 해외판매수입은 부진한 상태이며, 수탁협찬용역사업 등 기타 부대사업 수입은 예산대비 약 20% 미달했습니다.

향후 사업 여건 또한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주 수입원인 지상파TV 방송광고 매출 하락, 교육환경과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재판매 수입의 감소 예상, 경기침체에 따른 협찬사업 수입 감소 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난제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주체는 온전히 공사 구성원의 몫입니다.

온라인클래스의 서비스 저력, 팽수와 같은 혁신 콘텐츠 발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엄혹한 경영환경을 헤쳐 나가는 전사적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2020년 공사의 경영 여건을 살펴보면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에 더 강한 EBS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역시 콘텐츠입니다.

혁신 콘텐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창의성이 더욱 발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제2의 팽수와 같은 새로운 슈퍼 IP 콘텐츠가 탄생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신수종 전략사업 발굴입니다.

아시겠지만 원격교육지원사업 등의 공적재원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미래 지속 성장의 원천은 자체사업을 통한 자원 확보입니다.

현재의 사업을 끊임없이 재평가하고 OTT 활성화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신규 수익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공적재원의 확충입니다.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합니다.

2020회계연도의 경우 온라인클래스 서비스 관련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공적재원의 비중은 종전에 비해 높아졌으며, 2021년도 예산은 공적재원이 42%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스트 코로나에도 관련 공적재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적절한

대응은 필요해보입니다.

수신료 인상 논의에 있어서도 치밀한 논리와 전략으로 접근하여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어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성과분석을 통한 점검과 혁신입니다.

한계사업은 무엇이고 착수된 신규 사업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등을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성과분석을 통해 중간 점검하고 문제점은 개선해야 합니다.

성과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 앞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경영 전 분야에 있어서 핵심 이슈 리스크 관리입니다.

직장 분위기 조성은 물론 공사 이미지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갑질문화부당한 업무 행태예산의 낭비적 사용성비위프로그램 준칙 위반안전 및 정보보안사고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자원 수급에 있어서도 철저한 계획과 실행이 요구됩니다.

공적 책무 확장에 따른 한시 채용 인력의 관리와 직원 고령화 및 퇴직 등에 따른 인력활용 및 수급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결산 내용을 보면서 위기 때 더욱 합심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음을 실감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한 EBS,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 議長 유시춘

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는 다 점검을 했습니다만 오늘 의결하기 전에 더 보완해야 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영한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 理事 이영한

결산보고하고 감사의견서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EBS가 대외신인도도 엄청나게 높아졌고, 또 ‘우리가 과연 가능할까’ 생각했던 균형예산도 우리가 이뤘습니다.

그런 것은 사장님 이하 임직원 모든 분들이 일심단결해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이 결산보고는 작년을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올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또 다짐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BS가 작년에는 공적인 부분이 매우 커져서 여러 성과를 이뤘는데, EBS가 반공 반민의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 부분, 민간 부분의 관리를 우리가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견서에서 많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공적인 부분의 비중이 크지만 이런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판매, 추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것을 오히려 조금 더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작년 초에 사업을, 계속 사업 계획을 세웠잖아요.

세웠으면 그 사업마다의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지에서 100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100문제 하나하나 점수를 매겨서 총괄 점수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균형예산을 했으니까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큰 성과 있었다고 보지만, 세부 사업적으로 어땠는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재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과, 일의 성과가 어떤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전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별로 불용액도 중요하지만 진짜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런 것을 정책기획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부족했던 것은 올해 그것을 어떻게 만회할지, 아니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작년에 큰 성과는 많았지만 우리가 또 내년을 생각하고 올해 생각하면 우리가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이사장님, 혹시 허락해 주시면 말씀을 드려도..

○ 議長 유시춘

예, 말씀하십시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이영한 이사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누차에 걸쳐서 이사님들께서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이사회에 보고를 못 드렸기 때문에 계속 지적되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2가지 트랙으로 신년 업무계획이 잡히면 저희가 연중 지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트랙은 뭐냐 하면, 전 부서에 걸쳐서 저희가 연간지표들을 설정하고 있고요.

그 연중지표들이 매월 월중회의 때 지표화돼서 관리가 됩니다.

크게 보면 전사지표로 5개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수지에 대한 지표이고, 두 번째는 시청률, 세 번째는 VOD, 콘텐츠, 그리고 사업수익, 그리고 제작시설의 활용률까지 저희가 이런 식의 전사지표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한 각 부서는 신년 업무계획 중에 설정을 했던, 예를 들어서 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광고라든지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 기존 사업들의 목표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서류 상단에 아예 지표에 박아서 전월대비, 전년대비 다 실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올해는 그것에 기반한 축소, 확대, 지속 부분들을 확인했구요.

또 한 축은 어떤 축이냐면, 아까 이영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기획예산부에서 신수종사업 중심으로 연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모델로 6개 사업들을 설정해서 저희가 신수종사업의 예산평가들을 실시했구요. 그런데 그중에 중간에 진행을 하다 보니 ‘아카이브 리패키지’라는 사업은 저희가 실적을 중간점검해 보니 저희가 생각했던 기대치만큼 지속이 안 돼서 중간에 그 사업은 신수종전략 범위에서 빼버리고 거기에 투입됐던 인력과 자원들을 재분배해서 나머지 신수종사업들로 배정했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저희가 나름 노하우와 프로세싱을 익히게 돼서 올해는 EBS 운영계획 기획예산부 파트에 넣어서 일전에 이영한 이사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전략성장사업에 저희가 이번에 확대해서 9개 사업들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독사업이라든지 IP 관련 사업, 그리고 초중등교재, 고교 비연계교재 사업 등 저희가 중점적으로 자체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은 예산평가를 정확하게 과업과 매월 실적치를 받아서 모니터링 할 예정이고, 연말에 가서 그 데이터들을 성과 데이터로 추출해서 내년도 사업의 기본 백데이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議長 유시춘

아주 즉각적인 답변이 되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강호 이사님.

○ 理事 박강호

이런 표현이 이사회 석상에서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격세지감이랄까 감개무량이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사업손익이 2017년도에 -350억, '18년도에 -231억, '19년도에 -124억, 그리고 '20년도에 사업손익이 49억 이렇게 올라섰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한편에 매출액도 3천억 시대를 이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행부나 우리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다, 칭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이사들이 할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만 보탠다면, 감사님 의견에 나와 있다시피 ‘자만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좀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정말 신뢰받는 EBS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유시춘

또 말씀 주십시오.

[意見 提示하는 理事 없음]

제가 이것 급한 질의는 아닌데요, 하나 궁금해서 천천히 자료를 보고 싶은데요.

올해 우리가 64억4,500만원의 이익준비금에서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을 적립하고 나머지 7억 8,600만원을 국고 납입하는 것으로 지금 올라와있는데요.

우리도 교육방송공사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 공사가 준 정부기관으로 한 3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에서 올해 2020년도 EBS처럼 국고 납입하는 공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팽창한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는 공사도 많고, 또 EBS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는 데도 더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더 강력한 동기유발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위해서 이사회 차원에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시면 다음다음 간담회쯤 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일부 조사된 것이 있어서 기획예산부장님이..

○ 議長 유시춘

그렇습니까?

매우 궁금합니다.

○ 企劃豫算部長 김우영

기획예산부장입니다.

조사까지는 아니고요.

기재부에서 과년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2019년 배당 결과를 공표한 바에 따르면, 총 배당금은 1조4천억 정도이고, 그 당시 평균 배당 성향이 32.58%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확한 수치는 항상 보도자료 보라고 하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는데 평균 38% 정

도, 대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위는, Range는 35~40 정도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기관은 39개 출자기관이 있고, 2020년 같은 경우는 17개 기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1조4천억을 배당 받았습니다.

보도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알겠습니다.

또 의견 주십시오.

[意見 提示하는 理事 없음]

그러시면,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는 미정인 상태였는데요. 오늘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명기되어서 당기순이익 64억4,500만원에서 이익준비금 12억8,900만원과 임의적립금 43억7천만원을 적립하고 나머지 7억8,600만원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으로 교육방송공사 정관 제38조에 의거해서 의결해야만 합니다.

혹시 이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理事들 있음]

예. 그러면 지난번 간담회의 충분한 설명과 오늘의 보고 이후에 오늘 이사회 의결안건 제482호 「2020회계연도 결산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정관 제38조에 의거하여 당기순이익 64억4,500만원에서 이익준비금 12억9,800만원과 임의적립금 43억7천만원을 적립하고 나머지 7억8,600만원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議事棒 三打))

참고로, 교육방송공사 정관 제38조는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 第483號 : 2021年度 EBS 運營計劃案 】

○ 議長 유시춘

그러면 다음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2021년도 EBS 운영계획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議事棒 三打))

정책기획센터장, 보고해 주십시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2021년도 EBS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간담회에서 상세내용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이사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일부 내용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고에서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p)15부터 운영계획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앞부분에 있는 일반현황, 조직현황, 인력현황, 예산현황들은 수치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사회 간담회 때 보고 드린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내용에서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p)27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보고에 앞서 비용예산을 중심으로 짜진 이 운영계획 각 부서 예산내역 중에 집행부서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예산서 중심으로 되어 있는 예산 조정들을 일부 집행부서 중심으로 재편을 하였습니다.

특히 융합기술본부에 편제되어 있는 온라인사업 플랫폼 운영, 예를 들어서 사이트 운영이라든지 사이트 관련 인력 위탁 운영, 어플 개발, 도메인 등록 등에 대한 비용은 스마트사업센터의 인터넷모바일사업부로 이전하였습니다.

따라서 융합기술본부에서 당초 예정되어 있던 136억 중 24억이 스마트사업센터로 이동하고, 따라서 융합기술본부는 111억, 스마트사업센터는 289억에서 해당 내역이 증가한 314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해당 부분들은 다시 해당 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용예산은 총액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부서 간의 이동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p)27부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수정내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은 이사님 등 다수의 이사님들께서 이사회 간담회에서 고견을 주셨는데요.

‘EBS가 공적책무 강조를 통해서 사회적 기능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를 먼저 내세우는 게 타당하다.’

라는 의견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여서 방송제작본부에 기존에 표시되어 있던 시청률 20%

제고 목표를 삭제하고 공적책무 프로그램 제작을 통한 공영성 강화를 주요업무의 1순위로 배치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크게 부각되는 교육 불평등이나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서 저희가 연중으로 특집 프로그램들을 제작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교육문제에 대해서 아젠다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향상 콘텐츠도 제작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 대상의 <보이지 않는 상담소>, 또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에서의 적극적인 해당 계층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콘텐츠를 개발해서 공영성을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 교육격차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인 문해력 강화 특집 프로그램을 적극 제작하겠습니다. <다큐프라임> 6부작으로 3월 8일부터 3주 동안 방송될 '당신의 문해력' 편과 이 문해력 관련 연중 캠페인을 통해서 이러한 문해력의 중요성과 문해력 해결을 위한 솔루션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 대상 프로그램의 신설과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인 <생방송 50플러스>의 신설 등을 통해서 생애 주기별 콘텐츠 제작을 통한 공적 책무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고품격 유아어린이 콘텐츠도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제작함으로써 EBS의 공적 책무를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29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부 관련 운영 목표 역시 정동섭 이사님 등 다수의 이사님들께서 교육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책무를 강조하는 문구와 그것에 대한 결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저희도 적극 공감하여서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운영목표와 주요업무를 수정하였습니다.

주요업무 1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규 국고사업의 성공적 수행은 물론 또 원격교육 서비스의 성공적 고도화, 이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사업으로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콘텐츠 강화로 공익적 책무를 제고하고, (p)30,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중·하 수준별 콘텐츠 제공을 통해서 개인별, 수준별 맞춤형 학습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4번 에듀테크 기반 교육서비스 고도화 역시 일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총력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 부분 역시 미래교육 선도는 물론 학교교육 보완에 소홀함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36입니다.

주요 업무내용들은 변함이 없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융합기술본부의 비용예산 총액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111억3,500으로 기술되어 있었는데, 이사회 간담회 때는 저희가 융합기술본부 예산을 136억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인터넷 사이트 관련 운영비 등 24억원이 실제 집행부서인 스마트사업센터로 이관하여 발생한 수정입니다.

다음 (p)39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사업센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본부에서 이관한 예산이 플러스됨으로 인해서 기존 289억에서 314억으로 부서 비용예산이 증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p)40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센터에서 이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EBS의 공적책무에 대한 의지를 보다 더 선명하게 강조하기 위해 전사 TF, 정책 프로젝트 TF 구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킥오프 회의를 통해서 작년에 저희가 교육혁명 프로젝트 TF를 통해 올해 공적 예산과 공적사업들 수행을 수주해 온 것처럼 내년도, 또 차차년도의 그런 공적책무 개발에 소홀함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p)41 3번 사항입니다.

김진 이사님께서 고견을 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상생협력 부분을 2번 조직문화 부분의 하위로 편성을 했었는데, 상생협력 역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공영방송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분리해서 저희의 공적책무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p)43 콘텐츠기획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기존에 콘텐츠기획센터에서는 공영성 강화가 늘 1번 업무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정은 없는 것이고요. 해당 내용 중 생애주기별 대표 콘텐츠 발굴과 직업 재교육 콘텐츠를 통한 평생 교육 책무 강화라는 해당 부분을 명시함으로써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직업 재교육 역시 저희의 소중한 책무로 확대 지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들은 비용예산 중에 공통비용으로 잡혀있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부서 중심으로 편제해서 해당 부서에 100만원 단위의 변동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액수의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보고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이 역시 간담회 때 충분히 검토를 한 사안들인데요,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장옥님 이사님.

○ 理事 장옥님

지난번 보고 때 보다 훨씬 정리가 잘 된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p)46 보면 경영지원센터 주요 업무의 두 번째 ‘인사제도 개선을 통한 성과 지향적 조직문화 조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단순한 인사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p)40에 보면 정책 기획센터의 ‘창의적 조직문화 형성’ 하면서 ‘인센티브 제도 개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것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늘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사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연공서열이라 그러나요, 이런 것이 조직문화에 뿌리 깊게 박혀있고, 그리고 또 방송국이라는 이 조직이 사실 굉장히 젊은 피를 많이 수혈해야 되고 젊은 감각을 많이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인적 구성이 시니어 층에 많이 몰려있고, 그동안도 솔하게 보고를 들었고 또 저희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임금 같은 것도 거의 평준화 비슷해서 연간 호봉에 따라서 조금씩 오르고, 이것은 EBS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대부분 그렇고 KBS도 그렇고 그런 상황인데요.

혹시 사장님께서 충분히 EBS를 경영하신, 한 2년 정도 지나셨고 또 앞으로 남은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텐데, 사장님 계시는 동안 이 인사제도를 한번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여쭙보고 싶고요.

그렇다고 그게 물론 사장님 혼자만의 결정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노조와의 어떤 합의도 있어야 되고, 잘못하면 굉장한 저항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는, 올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작년 2020년이 적자를 면했지만, 어떤 이런 인력운영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개선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로 나가는 재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적인 면에서 크게 개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계시는 동안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 이렇게 경영지원센터의 운영목표에도 나왔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그냥 ‘연례적인 이런 보고로 인사제도 개선을 통한 뭐를 하겠다.’ 이런 건지 그 강도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社長 김명중**

경영지원센터장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經營支援센터長 정봉식**

‘인사제도 개선을 통한 성과 지향적 조직문화 개선’이라고 저희가 하나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 부분이 지도를 했었는데, 저희 현재 근평제도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도랄까요, 불만 이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적으로 상대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급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에 비율을 부여해서 그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1등급에 예를 들면 5명이면 1등급에 5명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또 어떤 부서에서는 1등급짜리가 다섯이 아니라 일곱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등급비율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근평제도 개선 초안을 만들고 구성원들하고의 공감대도 일단 형성이 돼 있고요. 다만 여기서 저희가 아직 미진한 부분은, 근평제도의 결과에 대한 반영 부분입니다. 반영. 그 반영 부분이라 한다면 잘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못 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패널티를 줄 것이냐?’ 이 부분이 약간 노조와 좀 더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회의도 자주 못 하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저희가 이것을 마무리 할 것이고요.

저희가 ‘공사발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근평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반기 중에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서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승진제도 부분입니다.

승진제도가 저희가 주로 차장 승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승진이 부서 단위가 아니라 직렬 단위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직렬의 T/O가 10명이라 한다면 직렬별로 승진 후보자가 몇 %를 차지하나에 따라서 그 10명을 배 분합니다. 물론 근평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이 차장이 되겠죠, 그 T/O 내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 직렬이 어떤 하나의 부서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렬과 다른, 예를 들면 기술직이 관리 직무에도 가있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소속 직렬과 업무하는 부서 업무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직렬 중심의 승진제도가 아니라 부서 T/O, 부서 단위의 승진제도로 개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제도하고 승진제도 개선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은 사내에서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부서장이 발령이 나고 그다음에 부장들이, 아무래도 부서장들하고 뜻을 같이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부장이 되게 마련인데, 저희가 특수한 미션을 띄고 있는 부서, 또는 정책기획 파트라든가 이런 쪽은 한 번쯤 직책, 저희는 직위라고 하는데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열정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등용해 보는 것이 어떤가. 구성원들의 어떤 성과지향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추진 해 볼까 합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인사부에서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구성원 간의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 議長 유시춘

그다음 사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社長 김명중

예.

사실 제가 맨 먼저 취임했을 때 장옥님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우선 성과급 제도에 대한 개념부터 경영진과 노조는 다릅니다.

노조는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데 찬성을 하지만, ‘기존에 다 받는 것은 받고 플러스알파로 잘한 분들은 주는 것은 좋겠다.’라는 원칙이구요.

지금 장 이사님 말씀하신 내용은 A, B, C, D로 해서 잘하신 분들은 많이 주고, 또 밑에 성과가 낮은 분들은 패널티가 있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인건비 예산은 올라가지 않지만 잘하는 분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노사의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사안이어서, 물론 방금 저희 경영지원센터장이 얘기한 것처럼 근무평정제도의 신뢰도 문제, 그리고 직무별 난이도, 직무별로 굉장히 고난도의 또는 많은 노력이 가는 일이 있고, 그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직무설계도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올해 공사발전위원회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전부 놓고 노사가 맞대서 서로 협의를 해서 뭔가 지향점을 찾아갈 텐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시스템 플러스알파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거기에는 아마 노조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텐데, 다른 방식이라면 설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노사 간에 긴밀히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EBS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안에 하겠습니다.’ 장담은 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의 어느 지상파에서도 하지 못한 숙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충분히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라도 어떤 방향성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런 솔루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문종대 이사님.

○ 理事 문종대

이것은 잘하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준비가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단 한번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충분히 준비가 잘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감사의견서에 보니까 ‘지난해 해외판매 사업이 부진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언택트 시대에 콘텐츠 소비는 더 늘어났는데 오히려 줄어들었다. 과연 코로나19 때문일 수 있겠느냐, 아니면 해외에도 판매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

나.나.’ 이런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수종사업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저번에 세계적인 석학 강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외에 충분히 수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좀 더 집중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MZ세대, 저번 간담회 때 잠깐만 언급이 되고 말았는데, MZ세대는 사실 콘텐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미디어에 가장 친한 세대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TV 매체를 별로 접근을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MZ세대가 TV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개발을 포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MZ세대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콘텐츠 개발에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SNS 시대가 가고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이런 가상현실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현실과 교육 콘텐츠 이 부분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유시춘

예, 다음 이영한 이사님 말씀 하시죠.

○理事 이영한

운영계획안은 예년에 비해서 일진보한 운영계획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구술방식이 잘 통일되게 정리돼 있고요, 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예산도 아주 알뜰예산을 쓴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들은 정책기획센터에서 했던 전략성장지원사업 성과 확대 이런 것이라든지 CI라든지 또 20주년 시사 발간, EBS 모델 세계화 추진, 또 글로벌 뉴스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것들이거든요.

이중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BS 크게 2가지거든요.

성인을 위해서는 교양,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를 위해서는 입시 두 방향인데, 국제적으로 보면 국가주의라는 것이 지금 득세하고 있잖아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남북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과연 앞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 그래서 세계평화나 인간의 교육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EBS가 그쪽으로 조금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EBS의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EBS 모델 세계화 추진도 좋고 특히 글로벌 뉴스에서 교육관계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나 세계 인류에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소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유시춘

예, 선동규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 理事 선동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색다르다고 할까, 순진한 생각이라고 할까,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이사님들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아까 감사님 감사결과 보고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런 정도의 성과를 냈으니 자만하지 말자.' 옳으신 말씀이죠.

'신발 끈을 더 조여매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체 조직을 끌고 가는데 계속 그렇게 다그치고 채찍질을 가하고 그렇게만 해서 성과가 나겠냐.' 나사를 계속 조이면 마음은 편하겠죠. 나사를 계속 쪼이면 뭐가 잘 될 거다, 이런 착각을 하기 쉬운데, 저는 그것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서,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좀 추상적인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전체 상하 간에, 동료 간에, 선·후배 간에 정말 끈끈한 정과 신뢰가 구축될 때 그게 가능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성과도 작년에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니까 좀 더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해서 하루 날 잡아서 '하나 되는 EBS라'든지 이런 타이틀을 내걸고 한번 화합을 다진다고 노사 간에 화합을 다지고, 상하 간에, 선·후배 간에 화합을 다지고 서로 신뢰를 확인하는 그런 이벤트, 그런 것도 하나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임원들이 이렇게 이것을 하자.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또는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이벤트를 해서 우리가 새로운 계기를 한번 삼아보자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 먹고 너무 순진한 발상에서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만날 회사 출근하면 '긴장 늦추지 마라.' '신발 끈 조여라.' '더 노력해라.' 이런 말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들으면 직원들이 질식을 할 것 같아요. 숨 막힐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議長 유시춘

예. 또 말씀해 주십시오.

○ 社長 김명중

답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 議長 유시춘

예, 말씀하십시오.

○ 社長 김명중

우선 해외 판매 부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해외 판매가 첫 번째는 미주지역에 있는 우리 동포들 대상으로 콘텐츠 팔리는 것이 있고요, 나머지는 글로벌 마켓에 가서 우리가 판매를 하고 서로 만나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세일즈하는 게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은 일체 해외에 나갈 수가 없어서 단 한 사람도 해외 마켓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비대면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오락 프로그램이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보니까 그런 우선순위, 소위 다큐멘터리를 찾는 고객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매우 저렴한 그런 상태여서 많이 부진, 액수로 따져서는 얼마가 안 됩니다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많이 내려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비대면 상황에서도 이 해외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EBS 뉴스레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포해서 이태리의 'RAI'라는 공영방송사에서 수천만 원을 주고 저희 콘텐츠를 사가고, 또 영국의 에이전트가 저희 것을 지금 세일즈를 하고 있고 제한된 환경에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만일 마켓에, 올 가을에나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또 칸느나 이런 데 가서 저희가 기존의 네트워크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잘 만들어서 해외 판매에 더 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EBS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는 뭔가 한 판을 벌려라. 그러나 경영진의 생각대로 말고 구성원들의 생각을 존중해라.' 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러나 지금 같이 집합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 부서 회식도 전체 한 번도 못 하고 있는 그런 환경인데, 가을쯤 가서 혹시 이 코로나 환경이 좋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서양에서도 그래서 축제가 생겨나는 거니까요.

매번 이렇게 신발 끈을 매고 열심히 일하다가 한번쯤은 또 에너지 충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명심해서 상황변화에 따라서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그러면 저는 2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모두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또 예측을 뛰어넘는 이런 성과를 얻은 데 대하여 이사회를 통해서 대표해서 우리 EBS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감사님이 주신 감사보고서 둘째, 셋째와 관련해서입니다.

둘째 '신수종 전략 사업 발굴'인데요.

제가 어제 미디어 관련해서 매우 높은 전문성을 지닌 교수님하고 꽤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

서 느낀 것은, 현재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과 시장은 가히 ‘혁명’이라는 말을 붙여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넘치지 않을 만큼 혁명적입니다.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는 나날이 침몰하고 있고, New Normal과 New Media는 다기 다양한 형태로 제멋대로 발전 도약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할해야 할 정부기관인 방송위원회는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형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과 제도는 늘 뒤따르기 마련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혁명적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정부기구가 너무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저도 유튜브를 자주 보는 편인데, 보면 EBS Culture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내용에 비해서 접속량이 굉장히 예측보다는 뒤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미디어의 변화하는 혁명적 소용돌이 속에서 EBS는 기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New Normal 시대의 젊은이들에 다가갈 수 있는 OTT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갖춘 최대 강점은 그것이 오락이나 위안이 아닌 공적인 책무에 충실한 콘텐츠라는 점입니다.

이 강점을 살려서 New Normal, New Media 시대에 부합하는 활성화 전략을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을 어저께도 또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공적재원의 확충’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A사가 띄워 올린 수신료 인상방안은 상해만 잔뜩 입은 채로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재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40년 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혁신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국민적 눈높이와 여러 유관 부서들과의 협력도 부족했던 듯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 공적재원의 확충이라는 것은 OECD 국가나 G7 국가들의 미디어 활용, 미디어에 들이는 공적재원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혁신해야 되는 것은 당위인데, 그것을 달성하는 전략이 아직도 우리가 서툰 게 아닌가 싶고요.

A사와 EBS는 결코 적대적이거나 배타적인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신료 조정 정국에서 향후에 반드시 이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A사와 EBS가 협조 보완적인 관계로서 새로운 관계 정립을, 새롭다기 보다는 마땅한 관계 정립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이 수신료에서 2.7%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비합리적이다 라는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했고 저 나름대로 또 여러 노력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전개될 이 수신료 조정 정국에서는 EBS가 A사와 새로운 동반자 내지는 협조 보완적 관계를 정립해야 될 것이고

요, 그래야만 이 공적재원의 확충이 국민적 동의 아래 자연스럽게 재편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EBS와 A사가 만약 그동안에 그러지 못했다면 새롭게 상호 보완적이고 협조적인 공동의 운명이라는 새로운 자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새 관계 정립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간추리면, 내용적으로는 공적책무를 더욱더 확충하되, 방법적으로는 침몰하는 레거시미디어, 새로이 솟구치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불리도 모자람이 없을 New Normal, New Media 시대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어떤 단위가 EBS 내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2가지 제안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부사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副社長 김유열

이사님, 이사장님 말씀해 주신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해서 올해 사실은 신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큰 방향 중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앞서 문종대 이사님 이사회 개최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해 공사법이 개정되면서 원격교육이 지상과 사업자와 관련된 법에 들어간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건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방송사업자라고 하면 A사, B사, C사와 같은 경우는 OTT 쪽의 방송과 무관한 비즈니스를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EBS도 공사법을 원천적으로 놓고 보면 그동안 할 수 없는데 EBS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 방송사 중에 가장 많은 OTT를 갖고 있는 회사 중 하나이고 사이트가 지금 한 7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돼서 그동안은 ‘원격교육’ 그러면 초중고 학습에 있어서만 원격교육이라는 개념이 매칭이 됐지만, 실제로 공사법에 들어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공사법의 목적, 그러니까 평생교육과 민주교육 발전도 원격 형태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지 않더라도, 과거는 방송부대사업입니다. 방송을 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인 원격교육 형태의 다양한 평생교육을 할 수 있게 돼서 어떻게 보면 방송사로서는 처음으로 OTT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 EBS다 이래서 굉장히 작은 일이 아니고 정말 이 시대에 EBS가 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고요.

레거시미디어의 쇠락은 저희들이 보기에 후퇴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올해 OTT 쪽에 다양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첫 번째가 방송사로서는 처음으로 글로벌 플랫폼 OTT를 올해 내 출범시킬 것이고 이미 연말에 보고를 드렸습지만 예산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고 사업계획도 수립이 돼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각종 구독서비스로 명칭이 돼 있는데, 제작본부 내에서는 헬스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중심으로 해서 먹는 것, 그다음에 정신건강, 기타 등등으로 한 OTT 플랫폼을 기획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또 라디오 쪽에서는 전통적인 레거시, 라디오방송뿐만 아니라 지금 오디오 디지털 콘텐츠 팀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는 ‘오디오 쪽에 지식 콘텐츠 허브를 만들겠다.’ 지난해 EBS의 어학 부분만 했었는데 평생교육 부분까지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이 돼서 지난해에 장옥님 이사님 예산 말씀하실 때 그 증액된 예산이 그런 방송도 하고 OTT에 서비스되는 그런 형태의 것이 준비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본부 중심의 OTT에서 평생교육, 그다음에 성인교육까지 확장되는 올해 첫해가 돼서 나름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 후년 계속해서 아마 확대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하고, 중간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알겠습니다.

예, 김양은 이사님.

○ 理事 김양은

사장님과 부사장님, 그리고 이사장님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도 이해가 가고, 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EBS가 작년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좋은 성과를 얻어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훈훈하고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송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편성이나 앞으로 더 고민하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기본계획만 봤을 때 사실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앞으로 6개월 안에 당장 편성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이 방송계획에 보면 물론 고품격 유아어린이 콘텐츠 제작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있고, 저희 EBS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메타버스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또 이번에 <딩동댕 대학> 같은 경우에도 아마 MZ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팽수 이후에 그들을 위한 연장선상이라고 보이는데, 사실 이게 조금 아쉬움인지 아마 숨겨져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EBS가 가지는 공적책무 중에서 한국 사회의 미디어 환경을 보고 있으면 사실 어린이, 유아, 청소년 거의 사라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라면 얘기를 저희가 또 돌려보면 대부분이 유튜브라든가 다른 채널들을 아마 부모님들은 선택해서 보여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는 게, 성인보다는 유아와 어린이들이 미디어 콘텐츠로부터 받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그냥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실 감성이라거나 문화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학력 격차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학년이나 유아에게는 사실 학력 격차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함께 더불어 하지 못했던 것들이라든가 소통에 대한 문제라든가, 사실 이게 몇 년 지나서 어떻게 나타날지, 이게 처음 만나는 소통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때 EBS가 가져야 될 콘텐츠는 무엇일까?’ 저도 계속 고민을 해 보고 있는데, 사실 아마 다들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EBS와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공적책무를 가지고 우리가 해 줄 때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소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OTT 전략도 반드시 이 유아어린이 콘텐츠에도 나와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고민스러운 게 이런 거죠.

앞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얘기인데, 사실 EBS 콘텐츠의 가장 큰 것은 저는 연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문화를 연결하기도 하고 세대를 연결하기도 하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나 유아 프로를 통해서 함께 연결이 돼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함께 소통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콘텐츠일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다른 방송이나 다른 콘텐츠들이 못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코로나19 이후를 얘기하면 ‘어떻게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균형감들을 이 세대들에게 우리가, 혹은 기성세대를 포함해서 함께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콘텐츠 안에 녹여낼 수 있는 이런 어떤 뭔가, 메타버스가 등장하고 VR 이런 것 등장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나 소통이 현실과 그렇지 않은 것의 균형감이나 연결성을 부여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유아나 어린이 프로에서부터 계속 같이 녹아나고 이 메타버스가 들어오기 전부터 준비돼야 된다 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서, 아마 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계속 고민해 주셔서 코로나19 이후에도 EBS 콘텐츠가 미리 준비하고 선도해서 정말 가치 있는 콘텐츠가 됐으면 하고요,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닿는 거 같아요. 유아나 어린이나 학부모들에게 닿는 거거든요.

그 전략이 만약에 지상파로, 저희가 내는 채널이나 이것으로 어렵다 그러면 OTT 전략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이들에게 닿을 수 있는, 소구할 수 있는 전략들이 함께 고민이 돼 주시면 너무 좋겠다 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 議長 유시춘

모두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의견 주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 社長 김명중

여러 말씀 감사하고요.

한 가지 소개를 해 드리자면, 저희가 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국내 방송사 최초로 메타버스를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예술 전시공연도 보고 또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막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방송에서 직접 활용이 안 되면 OTT 서비스를 통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연결과 소통을 하는 좋은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우리 관련 부서들이 협업을 한 3~4개 부서가 같이 해서 최근에 그것을 만들어서 저도 엇그제 처음으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저희가 아마 어느 방송사보다 앞장서서 메타버스 시대를 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議長 유시춘

예.

의결해도 될까요?

[“예.” 하는 理事들 있음]

그러면 의결안건 제483호 「2021년도 EBS 운영계획안」 은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議事棒 三打))

다음은 의사진행 관련해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차례에 의하면 연간 감사결과 보고가 먼저 있고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이 네 번째인데요, 이 순서를 원활한 진행과 방청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2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理事들 있음]

〈 報告案件 〉

【 第2021-3號 : 2021年 2月 主要 業務 推進 實績 및 計劃 】

○ 議長 유시춘

그러면 의안번호 제2021-3호 「2021년 2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三打))

정책기획센터장, 보고해 주십시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2021년 2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다큐프라임> 외부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자체제작비 외에 외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공적공모에 저희가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KCA와 RAPA 쪽에 이런 공모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이 부분에서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됩니다.

올해도 이 해당 분야에 적극 참여를 해서 이렇게 외부공모를 받아들 경우에는 자체제작비와 플러스를 해서 저희가 보다 효과적인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올해 연중 캠페인 소재 중 하나이자 아까 보고 드렸던 것처럼 지금 디지털 격차의 중요 원인 중 하나인 문해력에 대한 특집다큐 6부작이 3월 8일부터 23일까지 주2편으로 3주간 방송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다시, 학교란 무엇인가> 시리즈를 하면서 지금 현재 디지털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급속하게 학교 현장에서 이 문해력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학교란 무엇인가> 팀에서 문해력을 담당했던 팀을 특별히 재지정을 해서 그 팀에서 <당신의 문해력> 6부작을 장기간에 걸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집다큐가 이제 곧 선을 보일 예정이니 이사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번 사항입니다.

2020년 원격교육 공공플랫폼 실적 보고 및 2021년 실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원격교육 공공플랫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했던 온라인클래스라든지 또 학습 콘텐츠에 대한 예산 지원이었습니다.

작년에 422.3억의 교부계획이 세워졌고요, 그중에 417.5억이 실제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354억을 집행했고 올해로 68억을 이월해서 올해 1~2월에 이 해당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이루어질 원격교육 공공플랫폼에 관해서는 약 279억의 예산으로 현재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보가 될 경우에는 올해 원격교육 공공플랫폼 총 예산은 이월액 68억을 포함해서 347.3억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도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클래스 재구축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온라인클래스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많은 성과를 냈지만 또 사용자 측면에서는 불편함이 있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를 통해 온라인클래스2.0 시대를 여는 작업입니다.

이 부분이 3월 신학기 예정으로, 3월 개학을 예정으로 정식 오픈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는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유저들이 접근해서 일부 불편함이 있으면 즉시 그것을 반영하고 다시 재오픈하는 이런 식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교육부총리께서 개발사인 GS ITM 사무실을 방문하셨고, 이 자리에는 사장님과 학교본부장이 배석해서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같이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번 사항입니다.

2021년 EBS 활용 교육콘텐츠 제작 사업 오픈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교육혁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해서 신규 국고사업으로 수주해 온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수준별 학습 콘텐츠 상중하 콘텐츠들을 대량 제작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총 347.3억의 신규 국고사업으로 이중에 콘텐츠제작사업 해당 예산액인 147억을 지금 집행 중에 있고, 이중에는 콘텐츠 공급 외에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멘토·멘티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18일부터 콘텐츠 입고를 해 3월 개학시점에는 일정 부분의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계획 하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6번 사항입니다.

2021년 방송장비도입심의 준비 및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장비 전환들을 자체예산으로 쉽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의 지원을 받는 액수 22.9억원을 저희가 교부받아서 UHD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스튜디오를 저희가 UHD로 전환했고, 올해는 이 장비가 도입이 되면 종합편집실 1실을 UHD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7번 사항입니다.

콘텐츠 메타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관련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계획 때도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AI기술을 이용해서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하는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게 굉장한 비용과 인력이 소모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각 방송사들이 연계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AI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저희가 적극 대응해서 단순히 EBS만이 아니라 한국방송의 어떤 신기술 접목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사항입니다.

EBS 캄보디아 우정통신부 MOU 체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캄보디아 교육방송 구축운영 사업의 일환이고요, 이 부분이 MOU를 통해서 최종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 캄보디아 총리 보고 후에 확정되면 온라인 화상으로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 議長 유시춘

예, 말씀 주십시오.

○ 理事 정동섭

온라인클래스 거기에 대해서 현장의 얘기를 할게요.

‘뭔가 작년하고는 달라졌다.’ 이런 반응이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은 테스트 중이라는 그런 얘기죠?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맞습니다.

○ 理事 정동섭

베타 테스트 중인데 그 반응이 ‘작년하고 뭔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틀어만 놓고 하는 수업을 지양하라고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오픈을 하고 나면 몇 가지 요구가 있더라고요.

EBS 온라인클래스를 자기 나름대로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던데, 그것을 저에게 얘기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EBS에서 한번 그런 요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취합을 한다 그러면, 이게 운영 중에 그런 게 반영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한 번 오픈이 돼 버리면 그대로 쪽 가야 되는 건가요?

○ 社長 김명중

지금 학교의 의견들은 교육청 또는 교육부에 수합이 되고요, 저희가 그 의견들을 다 받아서 또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불만사항을 다 담아서 수백 가지를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큰 것은 지금까지 안 되던 동영상 기반으로 출석도 부르고 학생들을 볼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학습관리도 가능하고 데이터도 모으고, 또 EBS 콘텐츠를 쉽게 편집해 쓸 수 있는 저작도구도 올려놓고 그래서 전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겁니다만 그 기능이 수백 가지가 추가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오늘 현재 시점에서는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 미세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밤 새워서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보완하고 테스트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에게 이런 것이 돌아오면 저희는 바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ERP 업그레이드 하듯이 꾸준히 학교 현장에 이것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키는, 그리고 안정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 理事 정동섭

예.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중에도 저희에게 올라오는 얘기가 거의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얘기가 있으면 계속 이 프로그램 시스템은 개선이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 社長 김명중

예.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또 그것을 개발업체하고 논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理事 정동섭

예.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궁금하실 것 같아서 현재 온라인클래스와 지금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이 기능이 집니다.

이전에는 없던 기능이고, 따라서 별도의 화상수업을 학교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저작도구가 기존 온라인클래스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편집 툴이 제공이 돼서 EBS 콘텐츠, EBS 선생님들 자체 영상들을 동영상 편집을 통해서 자유롭게 탑재를 하실 수 있는 기능이 되고요.

또한 관리기능이 대폭 강화가 됩니다.

기존에는 교원분들끼리의 관리기능밖에 없었는데, 학교와 관리자를 통한 클래스 강좌 교원 학생 관리가 대폭 강화돼서 보다 학교 현장에서 대응하기가 수월해지실 겁니다.

또한 통계관리 데이터도 지금 제공할 예정이라서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 통계라든지 클래스 강좌 통계, 학습통계 이것을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단위 교육청에서도 적극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ashboard 중심의 기능, 그리고 시간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 마이페이지 제공 이런 부분들도 유저 중심으로 제공이 되도록 지금 설계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유시춘

예.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意見 提示하는 理事 없음]

작은 일인데요.

<다큐프라임> 외부제작 지원에 KCA, RAPA 등 이렇게 이니셜로 올라오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 제일 처음 올라올 때 풀 네임을 괄호치고 밝혀주세요. 의아합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죄송합니다.

○ 議長 유시춘

우선 이 KCA, RAPA 원명은 뭐죠?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KCA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고, RAPA는 전파진흥원입니다.

○ 監事 김재영

KCA는 나주에 있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입니다.

그리고 RAPA는 전파진흥협회이고요, 여기에서 방통위나 과기정통부에 미디어 콘텐츠 지원사업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공모사업 등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 議長 유시춘

그럼 우리가 공모사업에 Apply 해서 우리가 받아온 건가요?

○ 監事 김재영

예.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공모를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이제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받아 온 사업이라 최대한 노력해서 기존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그럼 지속사업화 된 건가요, 지금?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아닙니다.

○ 議長 유시춘

아직은 아닌가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그런 게 사실은 저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공적재원이 항시화되어야 사실 저희가 예측 가능한 콘텐츠 계획들을 수립하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일회성 공모라도 저희가 적극 대응을 해서 공적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앞으로 보고하실 때 처음 나오는 이니셜들은 그 본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더 의견 있으신가요?

[意見 提示하는 理事 없음]

그러면 보고안건 제2021-3호 「2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은 원안대로 접수합니다.

((議事棒 三打))

비공개 - 【 第2021-2號 : 2020年度 年間 監査結果 報告 】 - 비공개

○ 議長 유시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1-2호 「2020년도 연간 감사결과」 를 상정합니다.

((議事棒 三打))

○ 議長 유시춘

그럼 원안대로 접수해도 될까요?

[“예.”하는 理事들 있음]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하나 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 제가 어제 한 교수분으로부터, 그분이 EBS, A사, B사 평가위원을 모두 역임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EBS에 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해 주시는, 의전적인 덕담은 결코 아니었고요. 감사를 세 방송사를 모두 했는데 두 방송사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의견은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EBS가 방송대상을 받은 곤충 3부작인가요, 그것을 보면서 ‘타 방송사의 10분 1 가격으로 그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던 것으로 추측한다. 매우 격려해 주고 싶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EBS 일원으로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 얘기는 뒤집으면 ‘우리 EBS 종사자들이 정말로 가난한 가운데서 적은 임금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직분을 완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공적재원의 확충에 대해서 이사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저도 ‘더 배전의 노력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정부기관으로서 또 이렇게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타 공사와 비교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과 관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도 갖게 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제가 이번 신입사원 선임 과정도 제가 옆에서 멀리서 지켜봤는데,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개입하거나 이런 적이 없고요. 이 시대 젊은이들의 제1의 화두라고 볼 수 있는 공정성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EBS가 타 공사의 모범이 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더욱더 눈을 뜨고 감사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1년간 수고하셨습니다.

○ 監査室長 신상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그러면 오늘 이사회 보고안건 2021-2호 「2020년도 연간 감사결과」 는 원안대로 접수합니다.

((議事棒 三打))

(閉會 : 16時 49分)

V. 閉 會

○ 議長 유시춘

이상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 제306회 정기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議事棒 三打))

《散 會》